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Stroking Pattern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Positions

하동 양보 중학교
교사 최 철 숙*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 재 태

Hadong Yangbo Middle School
Teacher Choi, Cheol-Suk
Dept. of Education, Kyungsang University
Professor Kang, Jae-tae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reveal wha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attern of parental stroke as recognized by the child and the child's life pos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questions set above, 344 second year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10 different middle schools in Gyeongsangnamdo, were requested to complete a survey. From the completed surveys, the researcher was able to investigate issues such as; parental stroking pattern recognised by the child, child's life positions and changing factors in the home environment. The collected data was fed to the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for analysis, to present ;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교신저자 : 최철숙(E-mail: chsug@chollian.ne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s exist in parent's stroking patterns depending on variations in the home environment.

Secondly, the differences in student's life position were examined in light of changing home environmental factors.

Thirdly,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troking pattern and child's life position.

주요어(Key Words) : 생활자세(Life Position), 스트로크(Strok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자세를 살펴보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며 수동적인 학생도 있다. 또한 매사에 불만이 많고 좋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외톨이로 생활하는 학생이 있다. 이와 같은 생활자세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어떻게 길러졌는가에 따라 형성되어지며 어떠한 생활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각 개인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최초의 교육자로서 자녀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일 때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존재가치를 함께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생활자세가 형성된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적절하거나 거부적일 때 자신과 타인의 존재 가치를 낮게 지각하게 되어 자기부정, 타인부정의 생활자세를 갖게 되며, 성격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도영, 김남옥, 추석호, 이수연, 김규식, 1999: 305-306).

Eric Berne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장면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류분석(交流分析, TA : Transactional Analysis)에서는 부모의 스트로크가 자녀의 생활자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스트로크(Stroke)에 대한 교류분석의 공식 정의는 “인간 인식의 단위”로 스킨십(skinship),

눈짓, 몸짓, 표정, 감정, 언어, 행동 등으로 타인 존재를 인지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이기춘, 1989: 187). 인간은 유아기에는 주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받는 접촉이나 애무 등의 신체적 스트로크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성장하면서 찬사나 승인 등의 정신적 스트로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Spitz(1945)는 어린이집에 수용된 유아를 관찰한 결과 유아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자극을 많이 받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아에게는 피부의 접촉, 즉 스트로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선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이다(김현수 역, 1988: 108).

Harris(1969)는 인간에게 스트로크가 부족할 때 심리적인 죽음과 같다고 했다. 즉 인간은 스트로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산다는 것은 스트로크를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전영철, 2001).

이성태(1991)는 어린 시절에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했으면 부정적 스트로크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부정적인 자기관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으며, Hasen, Stevie & Watner (1977)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받은 스트로크들을 성장을 한 후에도 계속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조운미, 2003).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어린 시절의 스트로크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로크가 필요하며,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어떤 스트로크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생활자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은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며, 부모의 스트로크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생활자세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가장 이상적인 스트로크는 애정에 찬 긍정적 스트로크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심리적 변화, 정서적 불안정,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생활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심리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 부모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개선과 자녀의 긍정적인 생활자세 형성을 위해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있어 학교 내의 부적응 행동 요인을 가정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 등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기존의 선행연구에 있어 부모의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에 관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스트로크 기법을 활용한 생활자세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性),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존재 여부,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라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자세를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긍정-타인긍정 생활자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은 자녀의 성(性),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존재 여부,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자녀의 생활자세는 자녀의 성(性),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존재 여부,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스트로크

"안녕하세요?" 등의 인사를 서로 교환하거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어루고 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교류이며 스트로크이다. 따라서 스트로크란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말이나 태도에 의해 타인 존재를 인지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2) 생활자세

생활자세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받은 스트로크 경험들을 통해서 내리게된 자기긍정(I'm OK), 타인긍정(You're OK), 자기부정(I'm not OK), 타인부정(You're not OK)의 자기관(自己觀) 및 타인관(他人觀)을 뜻한다.

3) 노 스트로크(no-stroke)

타인에게 스트로크를 주려 하지 않거나, 타인이 주는 스트로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10개 중학교 2학년 남·여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4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44)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171	49.7	경제수준	중	291	84.6
	여자	173	50.3		하	16	4.7
부모존재 여부	양부모	325	94.5	가족간의 화목도	비화목	12	3.5
	한부모	19	5.5		보통	93	27.0
경제수준	상	37	10.8		화목	239	69.5

2. 조사 도구

1) 조사대상자의 기초자료 조사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는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별, 부모존재 여부,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간의 화목도를 조사하였다. 가

정의 경제수준은 학생들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3점), '중'(2점), '하'(1점)의 3단계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가족간의 화목 정도는 '화목함(3점)', '보통(2점)', '화목하지 않음'(1점)의 3단계로 조사 측정하였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 조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 노 스트로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는 각각 4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언어적, 조건적, 무조건적)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들은 2~3개의 영역에 걸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한 영역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늘 그러는 편이다'(4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각 해당 영역의 스트로크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신뢰도가 .961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52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생활자세 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자세의 측정도구는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생태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긍정, 자기부정, 타인긍정, 타인부정의 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40문항을 선택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생활자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자세 척도는 .711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성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1) 성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영역		남자		여자		t	p
		M	SD	M	SD		
긍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2.60	.79	2.47	.78	1.590	.113
	언어적	2.87	.57	2.75	.59	1.889	.060
	무조건	3.10	.57	2.93	.68	2.401*	.017
	조건적	3.08	.68	2.96	.68	1.570	.117
	전체	2.91	.53	2.78	.58	2.205*	.028
부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1.71	.59	1.63	.64	1.154	.249
	언어적	1.72	.52	1.76	.62	-.697	.486
	무조건	1.38	.40	1.47	.54	-1.678	.094
	조건적	2.04	.61	1.93	.65	1.690	.092
	전체	1.71	.42	1.70	.50	.306	.760
노 스트로크		1.33	.40	1.34	.40	-.225	.822

* $p < .05$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스트로크와 노 스트로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특히 무조건적 스트로크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이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부모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더 많이 받으며, 특히 무조건적 스트로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전에 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며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한다는 노호은(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반면 부모는 아들에게는 더욱 엄격하며,

딸에게는 비교적 수용적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정미리(198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할 수 있다.

2)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영역		경제수준		상		중		하		F	p
		M	SD	M	SD	M	SD	M	SD		
긍정적 스트로크	신체	2.57	.86	2.54	.78	2.36	.76	.448		.639	
	언어	2.79	.66	2.83	.57	2.47	.57	2.973		.052	
	무조건	3.10	.73	3.02	.61	2.68	.65	2.706		.068	
	조건	3.18	.61	3.02	.68	2.67	.76	3.245*		.040	
	전체	2.91	.58	2.85	.55	2.54	.58	2.653		.072	
부정적 스트로크	신체	1.64	.61	1.65	.60	1.98	.90	2.189		.114	
	언어	1.65	.45	1.73	.58	2.11	.63	3.937*		.020	
	무조건	1.50	.61	1.40	.46	1.64	.57	2.308		.101	
	조건	2.00	.63	1.97	.62	2.20	.73	1.061		.347	
	전체	1.70	.42	1.69	.46	1.98	.58	3.050*		.049	
노 스트로크		1.32	.46	1.35	.39	1.49	.38	1.352		.260	

*p< .05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스트로크에서는 조건적 스트로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스트로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스트로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부모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정적 언어적 스트로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경우 부모들이 생계유지에 급급하며, 자녀가 요구하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부모의 스트레스 표출은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감과 긴장감, 열등감을 갖게 하며,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Bernstein의 사회계층과 어법(cord)에 관한 연구에서 하류층의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제한된 어법'을 사용한다(강재태, 신재영, 송준수, 1998

: 63)고 하였으며, 또한 중·상류층의 어머니보다 하류층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제한적, 냉담적, 적대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Sears, Maccoby, Levin(195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 통제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원영(198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3)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영역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t	p
		M	SD	M	SD		
긍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2.55	.78	2.25	.83	1.580	.115
	언어적	2.83	.58	2.39	.52	3.190**	.002
	무조건	3.03	.63	2.78	.64	1.643	.101
	조건적	3.02	.68	2.93	.65	.594	.553
	전체	2.86	.56	2.59	.52	2.024*	.044
부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1.66	.61	1.83	.77	-1.141	.255
	언어적	1.73	.57	1.94	.56	-1.555	.121
	무조건	1.41	.48	1.56	.44	-1.212	.226
	조건적	1.98	.63	2.11	.60	-.863	.389
	전체	1.70	.46	1.86	.47	-1.467	.143
노 스트로크		1.32	.39	1.58	.46	-2.742**	.006

*p< .05 **p< .01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스트로크에 있어서 모든 하위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생들이 한부모가정 학생들보다 긍정적 스트로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언어적 스트로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p<.05).

부정적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노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양부모가정 학생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노 스트로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가정의 편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양부모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역할과중,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의 표출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위축감을 갖게 하며, 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양부모가정 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노 스트로크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결손원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배우자의 상실에 따른 불안, 우울, 분

노 등의 감정이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거나 거부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어진 결과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정현(1998)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편모의 경우 자녀에게 제한적, 거부적 훈육을 사용할 경향이 높고, 자녀와 의사소통의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또한 한 부모가정 자녀의 정서적 행동문제는 결혼자체보다 결혼 후 아버지나 어머니의 엄격하고 방관적인 양육태도에 기인한다는 이은경(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족의 화목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

영역		가족간 화목도		비화목		보통		화목		F	p
		M	SD	M	SD	M	SD	M	SD		
긍정적 스트로크	신체	2.00	.85	2.18	.72	2.70	.75	19.442***		.000	
	언어	2.08	.51	2.54	.55	2.95	.54	30.317***		.000	
	무조건	2.32	.80	2.74	.59	3.15	.58	24.511***		.000	
	조건	2.39	.81	2.74	.65	3.16	.63	19.435***		.000	
	전체	2.20	.64	2.55	.50	2.99	.51	34.120***		.000	
부정적 스트로크	신체	2.23	.63	1.75	.68	1.62	.57	6.832**		.001	
	언어	2.46	.67	1.94	.62	1.63	.50	21.823***		.000	
	무조건	2.08	.88	1.59	.52	1.32	.39	25.047***		.000	
	조건	2.46	.59	2.14	.66	1.90	.60	8.837***		.000	
	전체	2.31	.58	1.86	.49	1.62	.41	21.504***		.000	
노 스트로크		1.85	.62	1.52	.44	1.24	.31	32.586***		.000	

***p< .001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스트로크, 부정적 스트로크, 노 스트로크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즉 긍정적 스트로크는 가족간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높게, 화목도가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스트로크와 노 스트로크는 가족간의 화목도가 낮을수록 높게, 화목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볼 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나며,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엄경아, 1992; 원유미, 2000; 원지영, 1998; 이정옥, 2004)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녀의 성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1) 성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자세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생활자세 \ 성별	남자		여자		t	p
	M	SD	M	SD		
자기긍정	3.02	.59	2.92	.58	1.570	.117
자기부정	2.93	.63	3.11	.61	-2.611**	.009
타인긍정	3.37	.58	3.43	.54	-1.078	.282
타인부정	2.70	.49	2.62	.46	1.607	.109

**p< .01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자세를 살펴본 결과, 자기긍정, 타인긍정, 타인부정 생활자세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정 생활자세에 있어서는 남학생 평균이 2.93, 여학생 평균이 3.1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났다(p<.01).

이와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도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남아있으며(윤지연, 1999), 이로 인한 부모의 차별적인 양육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낮게 지각하게 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생활자세 \ 부모존재여부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t	p
	M	SD	M	SD		
자기긍정	2.99	.59	2.69	.47	2.121*	.035
자기부정	3.00	.62	3.28	.63	-1.874	.062
타인긍정	3.41	.56	3.25	.61	1.218	.224
타인부정	2.66	.48	2.77	.43	-1.003	.317

*p< .05

부모 존재여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를 살펴본 결과 자기부정, 타인부정, 타인긍정 생활자세에서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긍정 생활자세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낮게 나타났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부재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충분한 긍정적 스토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낮게 지각하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높은 가사부담, 양부모나 한부모가 없는데서 오는 열등감과 심리적 불안감은 낮은 자기긍정 생활자세를 갖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3)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경제수준 생활자세	상		중		하		F	p
	M	SD	M	SD	M	SD		
자기긍정	3.27	.66	2.93	.55	3.02	.82	5.740**	.004
자기부정	2.95	.75	3.02	.60	3.19	.80	.857	.425
타인긍정	3.32	.78	3.42	.51	3.28	.79	.807	.447
타인부정	2.78	.57	2.64	.44	2.82	.74	2.346	.097

** $p < .01$

<표 8>에서와 같이 자기부정, 타인긍정, 타인부정 생활자세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긍정 생활자세에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지각한 학생들이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이라고 지각한 학생들이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1$).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라고 지각한 학생들이 '중'이라 지각한 학생들보다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자기긍정-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났다는 김홍용(1987)의 연구와,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는 원지영(1998)의 연구결과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자녀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

는 교육수준이나, 이를 위해 부모들이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다를 수 있다. 중산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교육지원을 많이 할 뿐 아니라(김영화, 1992; 이정화, 1994), 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승이동에 관심이 많다(강재태 등, 1998 : 105). 따라서 자녀에게 능력이상의 교육기대를 함으로써 자녀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자기 긍정 생활자세를 낮게 인식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 수준을 살펴볼 때, '상'이라 지각한 학생이 10.8%, '중'이 84.6%, '하'로 지각한 학생이 4.7% 조사되어, 실제 생활수준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생활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자세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가족의 화목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가족의 화목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가족의 화목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

생활자세	비화목		보통		화목		F	p
	M	SD	M	SD	M	SD		
자기긍정	2.42	.36	2.81	.56	3.06	.58	12.188***	.000
자기부정	3.65	.45	3.04	.64	2.98	.61	6.848**	.001
타인긍정	3.26	.59	3.27	.53	3.46	.56	4.328*	.014
타인부정	3.05	.47	2.64	.45	2.65	.48	4.228*	.015

*p< .05 **p< .01 ***p< .001

가족간의 화목도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 차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자기긍정(p<.001), 타인긍정(p<.05)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부정(p<.01), 타인부정(p<.05) 생활자세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화목도가 자녀의 생활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Harris(1969)의 연구와, 자기긍정-타인긍정 생활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가 평화로운 사람이 많았다는 Thamm(197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간에 화목도가 높을수록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를 가진 자녀들이 많고, 자기부정-타인부정 생활자세를 가진 자녀들이 적다는 김홍용(1987), 조용현(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1)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표 10>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영역	생활자세	자기긍정	자기부정	타인긍정	타인부정
긍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234***	-.206***	.194***	-.098
	언어적	.282***	-.195***	.233***	-.121*
	무조건적	.338***	-.251***	.223***	-.048
	조건적	.255***	-.194***	.224***	-.018
	전 체	.328***	-.253***	.259***	-.085

* p<.05 *** p<.001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와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와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정적상관(p<.001)을, 자기부정 생활자세와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p<.001). 타인부정 생활자세에서는 언어적 스트로크(p<.05)에서만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스트로크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고, 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는 <표 11>과 같다.

<표 11>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영역	생활자세	자기긍정	자기부정	타인긍정	타인부정
부정적 스트로크	신체적	-.053	.136*	-.073	.190***
	언어적	-.166**	.297***	-.120*	.227***
	무조건적	-.137*	.276***	-.130*	.168**
	조건적	-.090	.217***	-.075	.206***
	전 체	-.135*	.282***	-.120*	.246***

* p<.05 ** p<.01 *** p<.001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와는 낮은 부적상관관계($p<.05$)를 보였으며, 자기부정, 타인부정 생활자세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는 부모의 스트로크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낮고, 자기부정, 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노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노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는 <표 12>와 같다.

<표 12> 부모의 노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의 상관관계

영역 \ 생활자세	자기긍정	자기부정	타인긍정	타인부정
노 스트로크	-.129*	.192***	-.185**	.151**

* $p<.05$ ** $p<.01$ *** $p<.001$

부모의 노 스트로크와 자녀의 생활자세간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긍정 생활자세($p<.05$)와 타인긍정 생활자세($p<.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부정 생활자세($p<.001$)와 타인부정 생활자세($p<.01$)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스트로크를 거부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생활자세가 낮고, 부정적 생활자세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자녀가 부모의 스트로크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고,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노 스트로크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부정, 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이 자기긍정-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났다는 유성희(2002), 조용현(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김홍용(1987)의 가정환경변인과 생활자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육아방식이 인성 통제 적일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생활자세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스트로크가 자녀의 생활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류분석 이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생활자세는 부모의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또래집단, 학교 등 가정외적 요인과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가정환경변인 등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교류분석(TA)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 중 자녀의 성(性),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 존재여부, 가족간의 화목도를 변인으로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의 성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각하는 방식이나,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 등 부모의 차별적인 양육태도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간의 화목도는 자녀 양육방식과 문화적 환경을 달리하게 하며, 자녀의 가치관,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사고, 질병, 별거,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의 생활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性)과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생활자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으며,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양부모가정 학생들보다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는 적게, 노 스트로크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으며, 가족간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스트로크를 많이 받으며, 부정적 스트로크와 노 스트로크는 적게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의 생활자세는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기부정 생활자세가 높고,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양부모가정 학생들에 비해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낮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생활자세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상' 이라고 지각한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 '하'라고 지각한 학생들보다 자기긍정 생활자세가 높았다. 또한 가족간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고, 자기부정, 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부모의 스트로크 유형과 자녀의 생활자세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높고, 자기부정 생활자

세가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스트로크와 노 스트로크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가 낮고, 자기부정, 타인부정 생활자세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비춰볼 때, 부모의 스트로크가 자녀의 생활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긍정, 타인긍정 생활자세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보다 수용적이고 애정에 찬 긍정적 스트로크가 필요하다. 아울러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이 요청되며, 가정과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자세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재태, 송준수, 신재영(1998).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30), 173-197.
- 김현수 역(1988). 스키다 미네야스 著, *교류분석*, 서울 : 민지사.
- 김홍용(1987). 가정환경변인과 생활자세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호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1998). 성 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경아(1992).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지영(1998).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희(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연(1999). 남아선호경향과 심리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1989). *교류분석(TA)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
- 이도영, 김남옥, 추석호, 이수연, 김규식(1999). *교류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성태(1991). 이해중심 TA와 재경험중심 TA프로그램이 자율성과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2003). 결혼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2004).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 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철(2001). TA-Stroke 훈련 프로그램이 자아상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리(1985).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특성 기대 및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현(1997). 자녀가 지각한 가정환경변인과 이고그램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2003). 스트로크기법 중심의 교류분석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e, B.(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rove Press.
- Hansen, J. C., Stevie R. R., & Watner R. V.(1977). *Counseling : Theory and process(2nd ed)*. Boston : Allgn & Bacon.
- Harris, T. A.(1969). *I'm OK-You're OK*. New York : A practical guide to transactional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linois : Row, Paterson & Co.
- Spitz, R. A.(1945). Hospitalism : An inquiry into the genesis of psychiatric condi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anal. Study Child.*, 1, 53-74.
- Thamm, R.(1972).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 of others : An exploration into personality syndromes", *TA Journal*, 2 : 4, 41-49.